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7-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22대 총선 특집: 득표율 분석

2024. 04. 08.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 유권자 연령대와 득표율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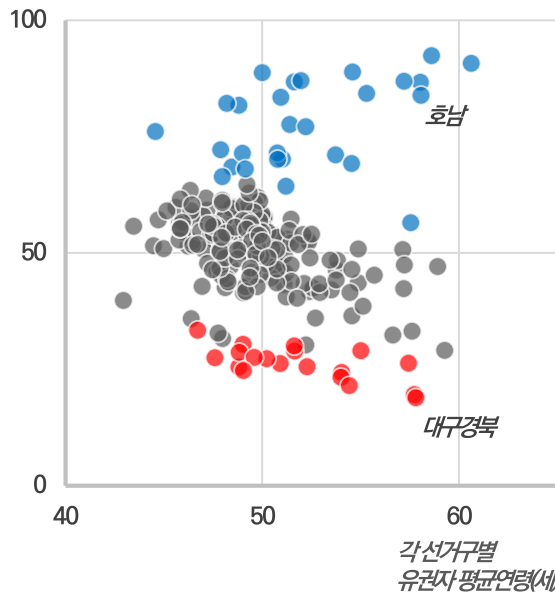
### 호남 제외, 유권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높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낮아

전국 254개 선거구별 유권자 평균연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간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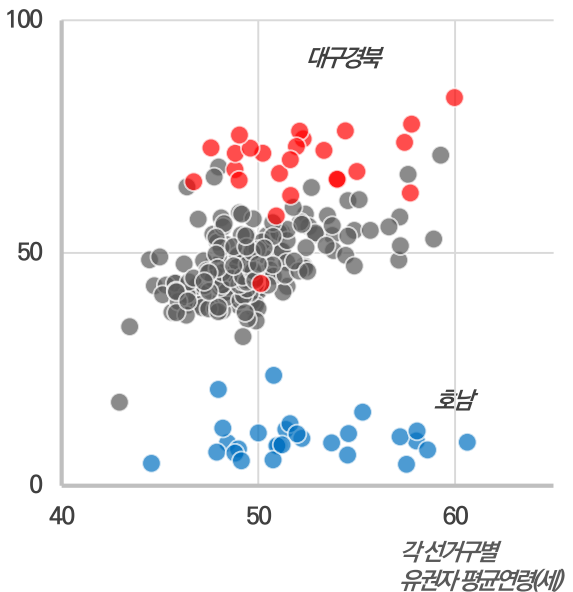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호남지역에서는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호남지역에서는 평균연령과 관계가 없이 모두 낮은 수준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2022년 치러진 대선 및 지선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호남 제외, 유권자 평균연령 높은 선거구일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높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낮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별 득표율 (호남 제외)	국민의힘 후보별 득표율 (호남 제외)
상관계수	-0.483	0.546
R제곱	0.234	0.299
P값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선거구를 의미. 가로축은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선거구별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후보별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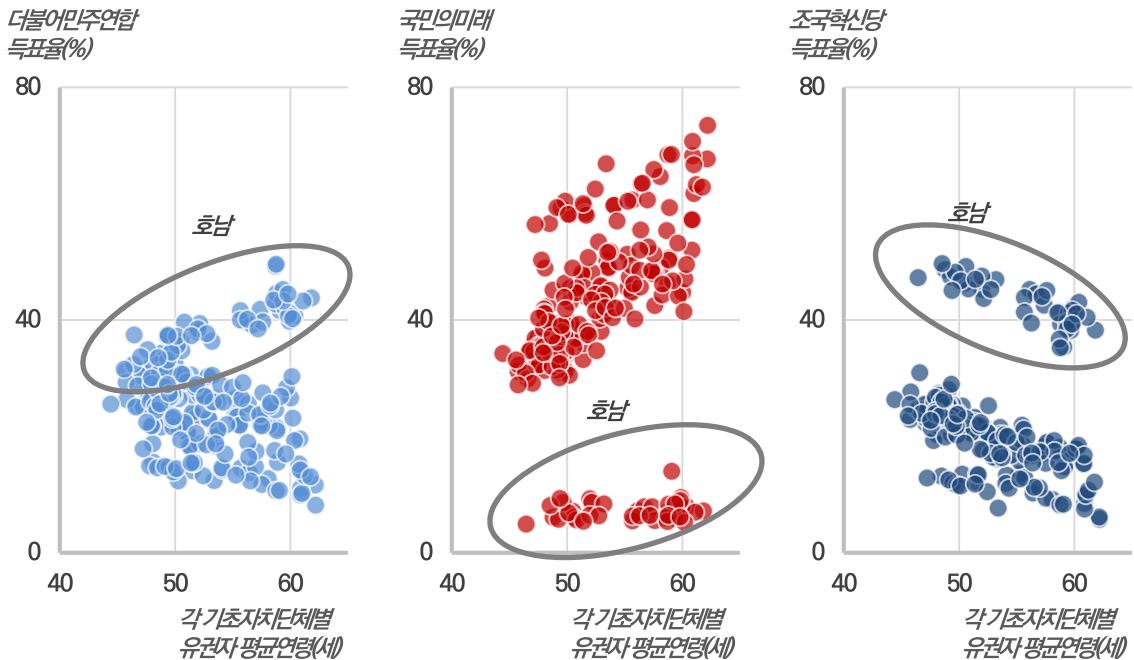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호남에서 정 반대의 득표 특성 보여 호남에서 연령대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낮을수록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높아

유권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성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패턴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나타난다. 252개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의미래는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득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모(母) 정당인 국민의힘과 동일한 특징이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득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특성과 일치한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두 당이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기초자치단체 3곳(전남 진도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흥군)의 유권자 평균연령은 모두 60세에 육박한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기초자치단체 3곳(전북 전주덕진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의 유권자 평균연령은 모두 50세 내외 수준으로, 유권자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득표율을 보인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소구력을 가졌다면,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에게 더 큰 지지를 얻은 셈이다.

세대별 유권자 비율과 득표율을 확인해 봐도, 조국혁신당은 지역과 관계없이 2·3·40대 유권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득표율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연합은 호남과 비호남 지역이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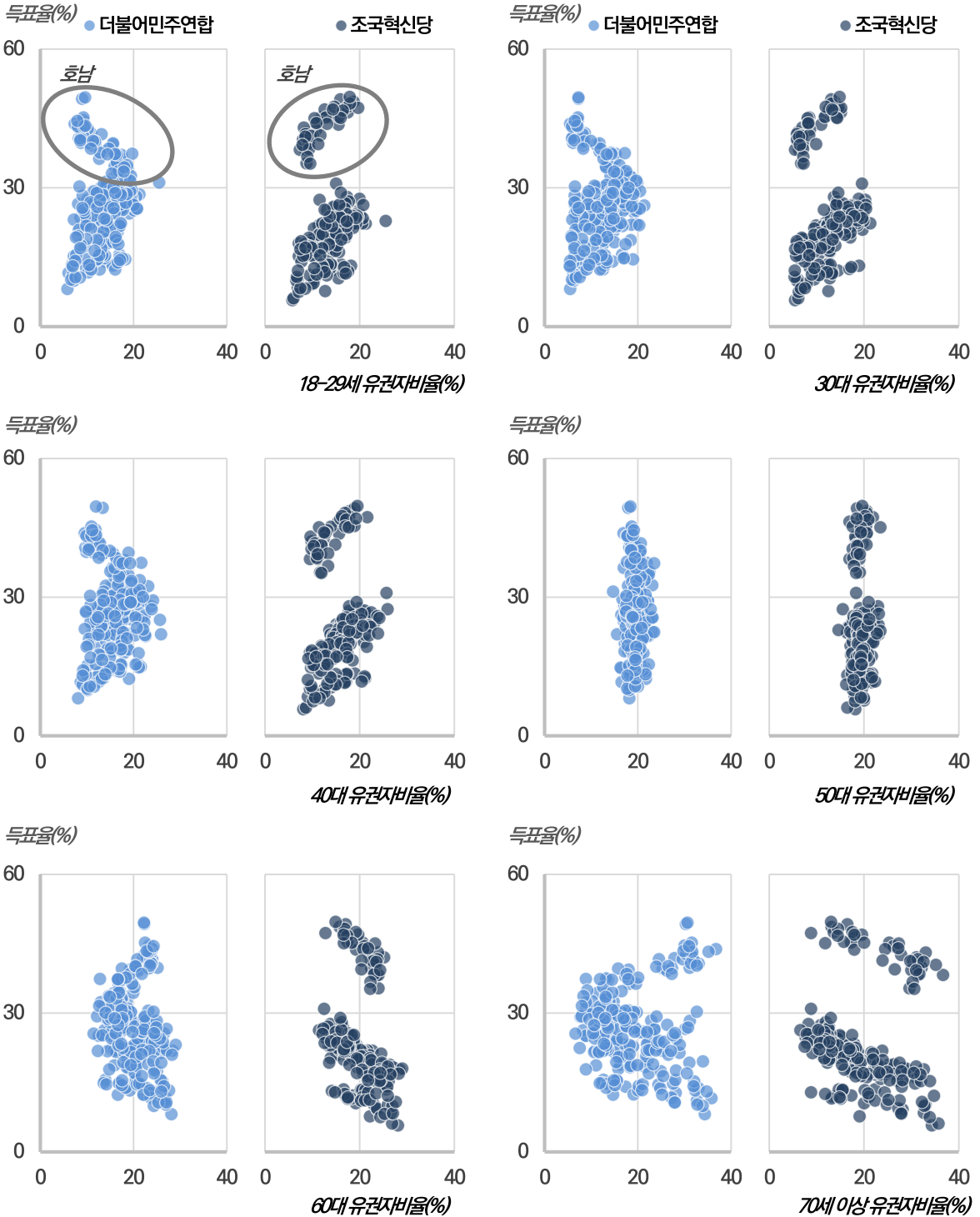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호남에서 정반대의 득표 특성 보여 호남에서 연령대 높을수록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낮을수록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높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연합 / 국민의미래 / 조국혁신당 득표율

**조국혁신당, 지역과 관계없이 2·3·40대 유권자비율 높을수록 높은 득표율 보여  
더불어민주연합은 호남과 비호남 간 서로 다른 특징 보여**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득표율

## 2 지난 대선 결과의 비교

### 선거구 기준, 지난 대선보다 국민의힘은 321만여 표, 득표율은 3.48%포인트 잃어 더불어민주당은 139만여 표가 줄었지만 득표율은 2.65%포인트 늘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에서 1639만 4815표, 득표율로는 48.56%를 얻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표는 1317만 9769표, 득표율로는 45.08%이다. 감소한 득표율은 3.48%포인트, 잃어버린 표는 321만 5046표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 득표율로는 47.83%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245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는 1475만 8083표, 득표율은 50.48%포인트이다. 대선 대비 138만 9655표가 줄었으나, 득표율로는 2.65%포인트가 늘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야권단일후보가 출마한 3곳(부산연제구, 대구동구군위군을, 울산북구)의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세종특별자치갑의 김종민 후보(새로운미래)의 득표까지 더할 경우, 야권이 얻은 표는 1496만 5353표, 득표율은 51.19%까지 올라간다. 투표율이 감소해 양 당 모두 득표 수가 줄었지만, 국민의힘이 잃은 득표 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잃은 득표 수 대비 두 배 이상 많다.

지역구 후보 기준, 양 당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로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 표를 얻었으나, 전체 지역구 의석 수의 63%에 해당하는 161석을 얻었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체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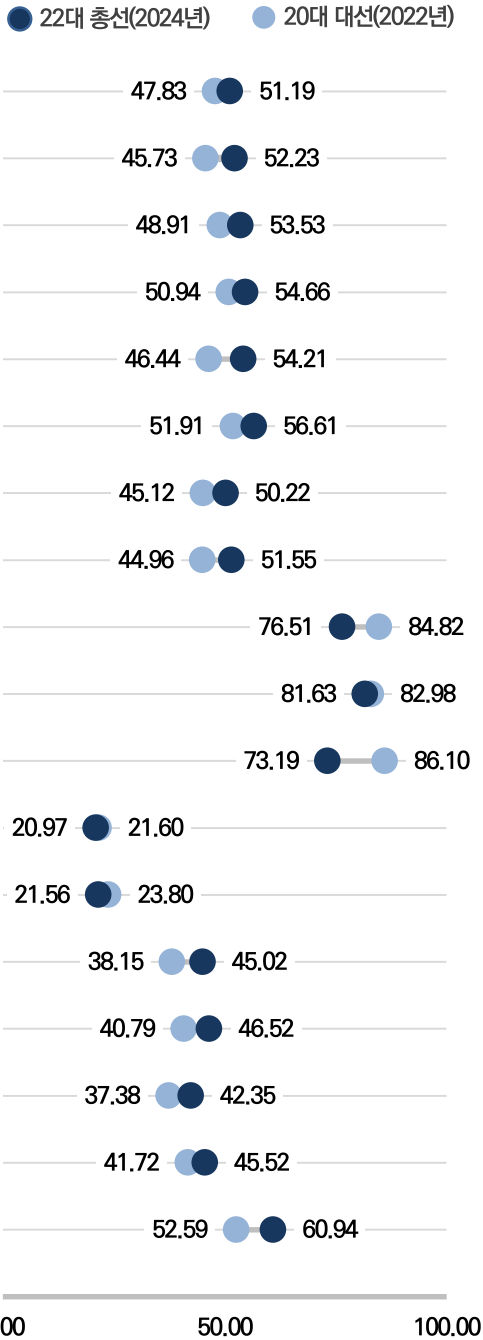
###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득표율 상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모두 득표율이 하락했다. 득표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대전광역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에서 49.55%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6.44%)를 3.11%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대전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7명이 얻은 득표율은 42.78%로, 대선 대비 6.77%포인트 하락했다. 무소속 후보 등과 경쟁한 경상북도(5.54%포인트 하락), 대구광역시(4.98%포인트 하락)에서도 하락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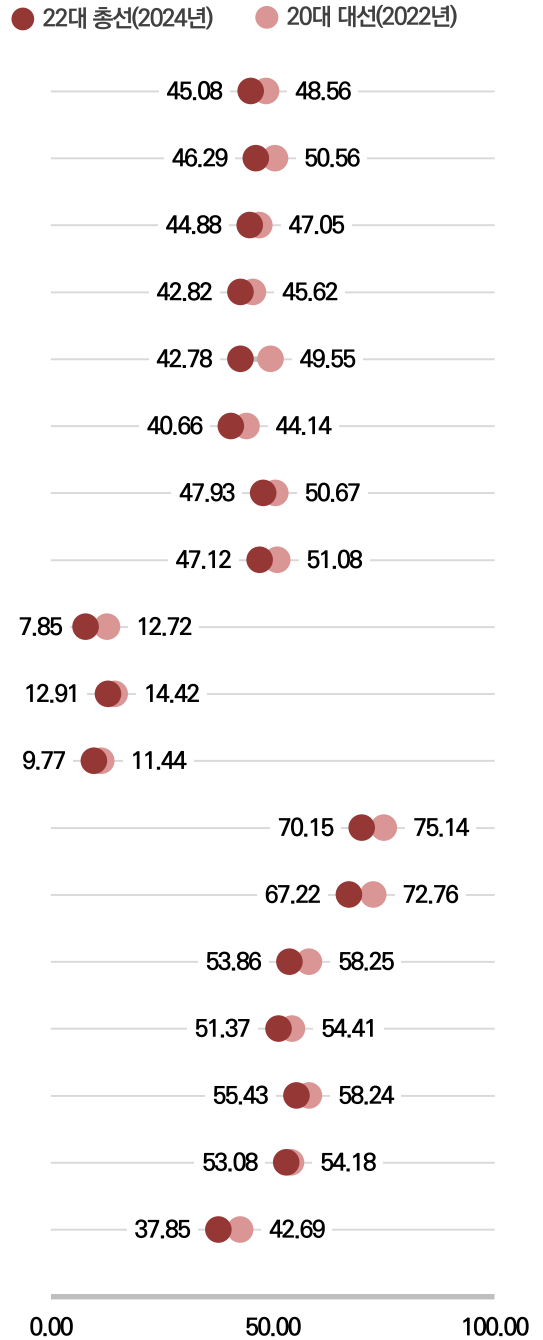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지난 대선 대비 득표율이 상승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특별자치도(8.36%포인트)이며, 대전광역시(7.78%포인트), 충청남도(6.60%포인트)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반면 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과 경쟁을 벌인 전라남도(12.91%포인트 하락), 광주광역시(8.30%포인트 하락) 등 5개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하락했다

### 17개 시도별 후보득표율 변화

#### < 더불어민주당 >



#### < 국민의힘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비고: 22대 총선에서 각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과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에는 부산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대구동구군위군을 진보당 황순규, 울산북구 진보당 윤종오, 세종특별자치시갑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득표 포함



## 충남 청양군 등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곳 전남 곡성군 등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곳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기초자치단체는 195곳이다. 그중 10%포인트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은 곳은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경남 창원진해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제주 제주시, 부산 북구 등 7곳이다. 충남 공주군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는 박수현 후보가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경남 창원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후보는 497표, 0.49%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다.

역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기초자치단체는 64곳이다. 그중 10%포인트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은 곳은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두 곳이다.

### 득표율 기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단위 : %p)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청남도 공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산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계룡시
득표율 차이 (22대 총선 - 20대 대선)	11.81	11.47	10.80	10.74	10.23	10.04	10.00	9.82	9.65	9.60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수현	박수현	황기철	(갑)조승래 (을)황정아	박수현	(갑)문대림 (을)김한규	(갑)전재수 (을)정명희	(갑)우원식 (을)김성환	나소열	황명선
당선여부	당선	당선	2위	당선 당선	당선	당선 당선	당선 2위	당선	2위	당선

### 득표율 기준,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단위 : %p)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득표율 차이 (22대 총선 - 20대 대선)	19.93	10.29	7.28	6.78	6.47	6.45	5.23	4.97	4.62	4.60
국민의힘 후보	이정현	이정현	박형수	이철규	유상범	이정현	이철규	김성원	이철규	강대식
당선여부	2위	2위	당선	당선	당선	2위	당선	당선	당선	당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으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우위로 돌아선 곳은 38곳

후보 득표율 기준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으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우위로 돌아선 기초자치단체는 총 38곳이다. 서울은 성동구, 강동구, 영등포구, 중구 등 총 9곳이며, 대전은 5개 구 모두 민주당 우위로 돌아섰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부산 북구, 경남 김해시, 충남 서천군, 충북 증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이 우위가 바뀐 지역이다.

반대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기초자치단체는 2곳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경기도 동두천시가 이에 해당한다.

### 후보 득표율 기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으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우위로 돌아선 곳은 38곳

서울특별시(9)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경기도(2)	용인수지구, 포천시
부산광역시(1)	북구	강원특별자치도(2)	춘천시, 원주시
인천광역시(3)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충청북도(5)	청주상당구, 청주서원구, 청주흥덕구, 증평군, 음성군
대전광역시(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남도(8)	천안동남구,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울산광역시(1)	동구	경상남도(2)	창원성산구, 김해시

### 후보 득표율 기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으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위로 돌아선 곳은 2곳

인천광역시(1)	중구	경기도(1)	동두천시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아파트매매실거래가와 득표율 간 관계

**지난 대선, 지선과 동일하게 수도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이 기준선 1평(3.3㎡) 당 2,000만원까지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상승, 평당 2,000만원 이상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상승**

2022년에 치러진 대선 및 지선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매매실거래가와 후보 간 득표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 **지선** 모두, 수도권에서 선거 직전 1년간의 아파트매매실거래가 전용면적 3.3㎡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가격이 낮은 곳은 가격이 높을수록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고 이보다 가격이 높은 곳은 가격 높을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번에도 유효할까? 윤석열 정부 시작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까지, 수도권의 각 선거구별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가격(전용면적 3.3㎡ 기준)을 구한 다음, 득표율과 비교해 보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2,000만원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뉜다. 윤석열 정부 시작 이후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평당 2,000만원 이하인 수도권 선거구 45곳에서는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 반대로 평당 2,000만원 이상인 수도권 선거구 77곳에서는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간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부동산 자산이 투표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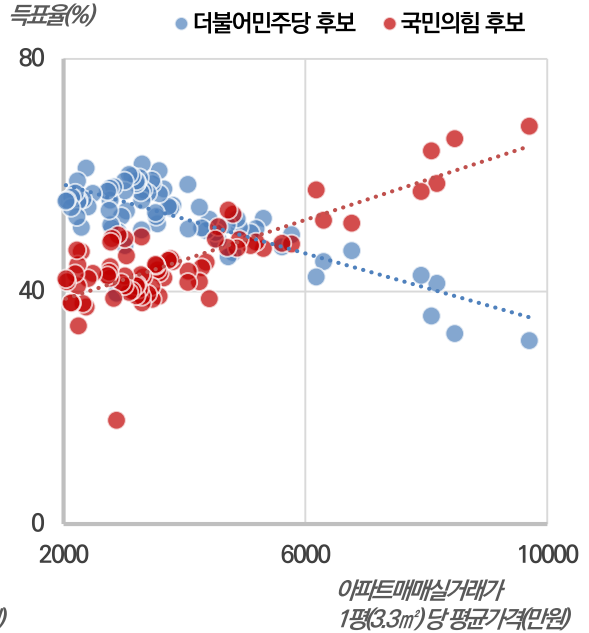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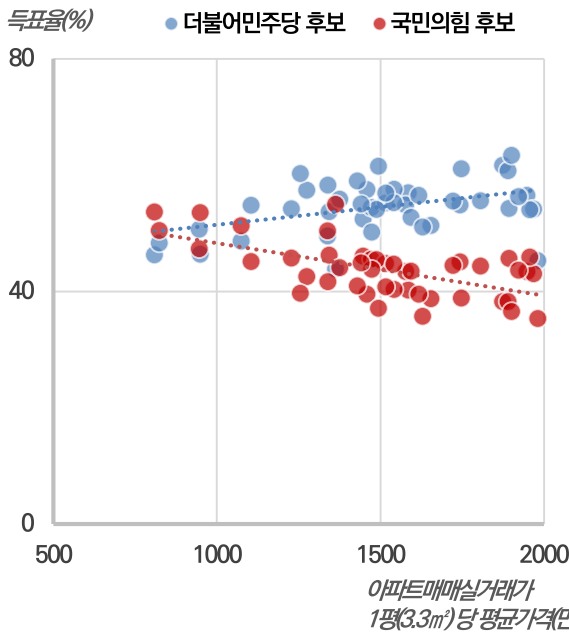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총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중 12명이 아파트매매실거래가가 평당 4천만원 이상인 선거구에서 나왔고, 특히 아파트매매실거래가 상위 10개 선거구 중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유일한 지역은 서울 양천갑으로, 후보간 격차는 1.63%로 박빙이었다.

#### 수도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상위 20개 선거구 및 결과

선거구	1평(3.3㎡) 당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만원)	당선인(정당)	1-2위 격차 (%p)	선거구	1평(3.3㎡) 당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만원)	당선인(정당)	1-2위 격차 (%p)
서울서초갑	9703	국민의힘	36.90	서울중성동갑	5304	더불어민주당	5.22
서울강남병	8470	국민의힘	33.53	서울중성동을	5182	더불어민주당	2.27
서울강남을	8175	국민의힘	17.14	서울강동갑	5097	더불어민주당	2.24
서울강남갑	8084	국민의힘	28.38	서울송파병	4910	더불어민주당	2.08
서울송파을	7914	국민의힘	14.42	서울광진갑	4872	더불어민주당	5.08
서울용산	6769	국민의힘	4.75	경기성남분당갑	4803	국민의힘	6.56
서울송파갑	6303	국민의힘	7.11	서울동작을	4722	국민의힘	8.04
서울서초을	6178	국민의힘	14.98	서울광진을	4706	더불어민주당	3.88
서울양천갑	5770	더불어민주당	1.63	경기성남분당을	4563	국민의힘	2.26
서울마포갑	5614	국민의힘	0.59	서울영등포을	4512	더불어민주당	1.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pt/xls/xls.do>)

지난 대선, 지선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이 기준선 1평(3.3㎡) 당 2,000만원까지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상승, 평당 2,000만원 이상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상승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 미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 이상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 미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2,000만원 이상
상관계수	0.421	-0.782	-0.595	0.775
R제곱	0.177	0.612	0.354	0.600
P값	0.000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pt/xls/xl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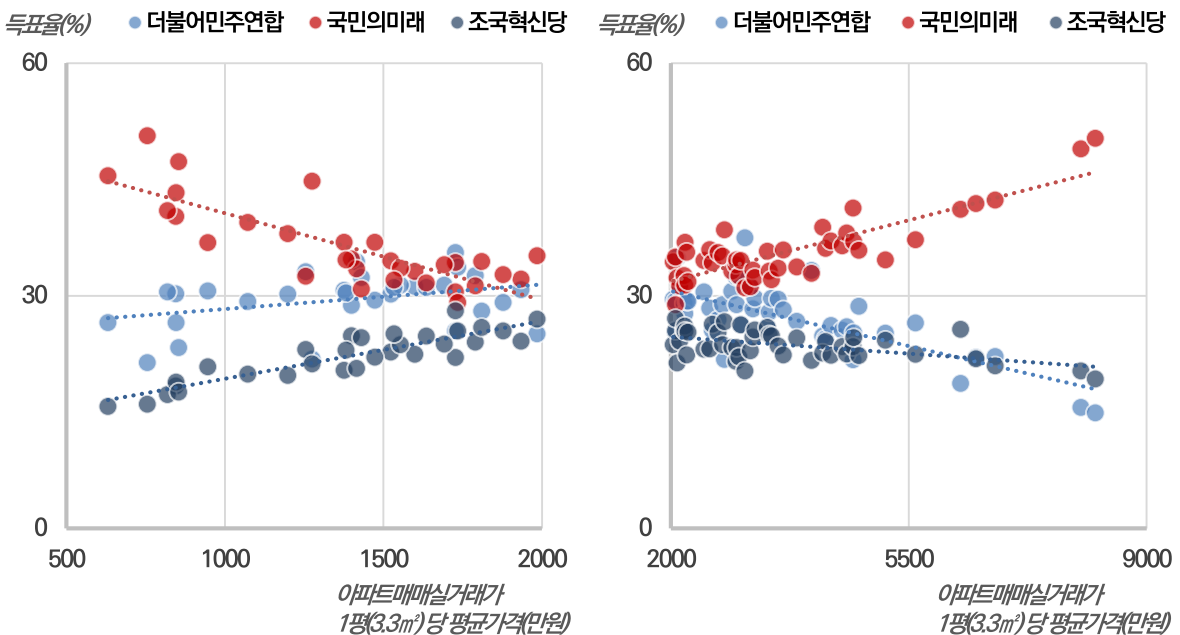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선거구를 의미. 가로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1평(3.3㎡) 당 평균 가격, 세로축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후보별 득표율

## 수도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도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2,000만원 기준으로 변화 조국혁신당, 2,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하락폭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작아

수도권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또한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당 평균 2,000만원선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1평(3.3㎡)당 2,000만원 이하인 곳에서는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국민의미래 득표율은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높아진다.

2,000만원 이상인 곳에서는 실거래가가 높아질수록 국민의미래 득표율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떨어진다. 다만 하락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정당지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득표율 변화와 좀 더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폭이 작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차별성을 갖는다. [서울 2257개 투표구의 비례대표 개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도시 데이터 분석가 신수현의 연구](#)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평균 주택공시가격과 상관관계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택 공시가격이 높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이 약세를 보인 곳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강세를 보이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도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2,000만원 기준으로 변화  
조국혁신당, 2,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하락폭 더불어민주당연합보다 작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pt/xls/xls.do>)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매매실거래가 1평(3.3㎡)당 평균 가격, 세로축은 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연합 / 국민의미래 / 조국혁신당 득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본 분석은 X(구 트위터)의 @nobody\_indepth 님이 구축해 주신 [22대 총선 선거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하였습니다. @nobody\_indepth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